

<http://dx.doi.org/10.17703/JCCT.2016.2.1.53>

JCCT 2016-2-5

제례진설의 상징성 연구

Symbolism of Ritual Arrangement Research

이철영*, 김은지, 박상미, 정겨운, 김정래**

Lee Chulyoung*, Kim Eunji, Pak Sangmi, Jeong Gyeoun, Jeong-Lae Kim**

요약 조선시대의 예학의 기준을 제공하였던 『朱子家禮』는 현재까지도 조상과 소통하는 제례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제례의 진설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으며 형식적인 의례절차로 이해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제례진설의 상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상과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 고대 천문학과 우주 질서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음양오행론을 통해 『朱子家禮』에 나타난 진설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례진설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우주관과 세상에 대한 질서 논리인 음양오행의 상징구조에 의해 진설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례진설에 담긴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제례 문화의 원형을 이해하고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제례준비, 음양론, 천문학, 제례진설, 조상숭배

Abstract There has been many researchs about 『朱子家禮』 providing the basic mannerism in Josun Dynasty era and influencing rituals to communicate ancestors. However, the arrangement of ritual has not been researched and understood as formality. In this study, the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 theory was researched in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in the universe order and ancient astronomy that provided the academic basic and idea in the era to understand the arrangement of the ritual, and based on this, the arrangement in 『朱子家禮』 was analys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arrangement in ritual was made by the structure of symbol of Yin, Yang and five elements, which is the logic of order in universe people understood at that time. Through this,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arrangement in ritual, the ritual culture would be properly understood and passed to next generation despite of changes in culture.

Keywords : Ancestral ritual arrangements, Yin-yang, astronomy, symbolism of table arrangement, ancestral worship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자연적·인공적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의 대상물들과 함께 공존(共存)하게 된다. 인간들은 이들 대상물들을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공존체로만 보지 않았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함으

*정희원,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주저자)

**정희원,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9월 4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12월 22일

계재확정일자: 2016년 1월 18일

Received: 4 September 2015 / Revised: 22 December 2015

Accepted: 18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jikim@eulji.ac.kr

Dept. Biomedical Engineering, Eulji University

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자신들의 삶 자체에 가치를 높여 왔다. 언어(言語)와 함께 의·식·주(衣食住)를 중심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각 문화에는 인간이 부여한 의미들로 가득 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의미부여의 연속[1]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의미부여’는 우리 민족의 사상·철학·정서가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상징(象徴)’이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상징은 인류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화의 모든 현상의 표현이며[2], 문화는 인간의 집단적인 모든 일상적 행동 내지 생활방식을 말한다. 생활방식에는 그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등을 반영하며, 세대 간에 공유되고 학습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류학자인 코탁(Kottak 1994)은 문화란 사회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learned), 공유되고(shared), 양식화되면서(patterned),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transmitted)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속성(屬性)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3] 또한 문화를 통해 유형화되고 양식화된 행동은 미래에 어떤 다른 유형화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사람들의 기대와 신념으로 귀결된다(Haviland 1996)[4]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의 속성은 의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의례는 그 사회의 사상·정서·제도 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거행하는 정형화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의례는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수행에는 일상적 의사소통방법이 아닌 비일상적 방법들이 동원된다. 일상적인 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례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비일상화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규범화됨으로써 의례화 되어 전승[5]되어진다.

의례상황에서 상징체계는 사건, 물건, 활동, 관계, 몸짓, 공간적 단위 등으로 표현되어지며[6],

사람들은 의례에 나타나는 상징체계를 통해 의례적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관계를 창조·유지해나간다. 현재 우리나라 의례의 기본 바탕에는 『朱子家禮』에 의한 의례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朱子家禮』는 생활의례로 제시되어, 일상적 패러다임을 유교화[7]하였고, 행동 기준의 차원에서 주로 강조되었다. 또한 사회적 질서의 규범으로 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교적 제의의 구성과 절차를 확립하게 된다. 이후 각 시기의 시대정신과 결합하면서 도입·확대·정착의 과정을 거쳐 조선의 의례 전범으로 안착하여[8] 21C인 오늘날에도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유교적인 도덕, 규범, 사상, 제도의 종합적인 산물로서 제례는 핵심을 이루는 중요 의례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근대화·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변동과 종교적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 사회에 비해 제사의 빈도가 낮고, 절차의 생략이나 상징적인 의미 또한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추석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많은 귀성인파들이 고향에 내려가 조상을 찾아뵙고 있다. 또한, 설과 추석이 되면 언론을 장식하는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 명절차레와 관련된 차례 지내는 법, 예절법, 한복 입는 법 등 명절 관련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9]. 비록 제례를 주관하는 집단 성원들의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제의에 관한 성원들의 의식도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는 의식은 곧 제례의 관행에도 변화를 야기했지만[10], 제사라는 형태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제사는 아직도 사라져 가는 전통이 아니라 현재에도 한국인의 생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임을 알 수 있다[11]. 그러나 학습되어진 문화는 이전 세대의 인식을 똑같이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외형적 양상은 같아도 내재된 의의는 재해석되어서 반영되고 표현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문화 속의 제례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적절히 변형되면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12]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문화의 변화는 일어나는

데 그 변화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제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朱子家禮』를 기준으로 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제례진설에 나타난 상징체계를 통해 진설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례의 기준과 상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례 문화의 생명력이 유지되어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검토

조상제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제례의 절차와 제물의 진설 등 의례의 외형적 형식과 변화양상, 또는 제례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철학적 이해를 통해 동시대의 조상제례에 내재된 의식세계의 이해를 주된 논점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 성과를 분석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례의 본질적 속성을 다루거나, 역사적·철학적 연구의 경우 예학이라는 학문적 성과에 치우쳐 제례의 변화양상과 변화요인을 간과함으로써 제례의 현대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현장성에 접근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반면,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동향에서는 의식세계의 이해와 조상제례의 기본구조와 속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연구진행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예학적 연구와의 교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통의례의 형식구조를 제례진설의 상징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제례의 본질적 의미와 현대인의 제례의 이해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례의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변화요인과 변천과정을 통해 제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기 전승되며, 사회의 가치 규범이 표현되면서, 전통사회의 생사관과 우주관, 음양오행론 등 세상 질서에 대한 상징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의례로서 제례를 대상으로 제의례 상징체계

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제례진설의 내적 문화요소를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의례적 질서와 시공간의 상징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고대 천문관의 이해

1. 상징체계 이해의 필요성

전통의례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례진설의 상징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례에 대한 이해가 전통의 관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시각을 살펴보면 “과일에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추는 씨가 하나이므로 임금, 밤은 한 송이에 세 톨이 들어있으니 삼정승, 배는 씨가 6개니까 육판서, 감은 씨가 8개이므로 팔도를 뜻한다는 속설은 제사상의 과일을 나라의 통치구조와 그대로 연결 짓고 있음을 뜻한다. 과일에 국가의 통치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제사상의 과일은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잡히고 가치의 경중이 고려된 모든 과일로서 상징적 비약을 하고 있는 셈이다.” [13] 라고 하여 제례진설에서 과일의 선정과 배치에 국가 통치구조의 논리를 반영하여 진설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제례진설의 이론적 근거는 송대(宋代) 주자에 의해 저술된 『朱子家禮』에 의한 것임은 물론 조선의 예학 역시 『朱子家禮』의 실천논리로서 발전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황제국의 지위에 있던 송(宋)나라에 왕과 삼정승 육판서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버린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문화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상징체계의 논의에 앞서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배경과 정신적인 배경으로 구분하여 보았으며,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는 인류생활의 모든 현상을 물질적인 면, 즉 경제적 요소만으로 해명하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써 그 반대인 정신적인 면, 즉 인간의 사상과 신앙이 그 사회에 끼치는 심대

한 역할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에 근거한다. 더욱이 고대에 올라 갈수록 인간의 지식은 풍부하고 이성은 발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인의 사상과 신앙은 그 사회의 풍속, 습관, 의식, 제도 등의 형성에 기본적 요소가 되었던 것이니 여기에 우리는 한국 고대의 여러 풍습과 제도를 그 시대의 사상과 신앙을 통하여 연구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14]는 문화해석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풍습과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준이 동시대의 사상과 신앙에 대한 연구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행의 연구시각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제례문화에도 각 시대별 사상과 신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신앙적 요소에 포함된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례의 의미적 해석이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례의 대상으로 조상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신주의 제작과 의미에 대해 『朱子家禮』에는 “정자는 時日月辰을 본떠서 신주를 만들었으며, 그 신주의 받침대는 4방으로 하고, 머리는 둥글게 하고자 하였으며 그 두께와 너비, 높이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었다” 고 신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례진설에서 과일 선정과 배치의 논리가 국가 통치구조의 논리를 반영하여 진설한 것으로 이해한 현재 우리의 인식을 볼 때 본래 제례의 상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인식보다 당대의 사상과 논리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와 상징의 해석이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朱子家禮』에서 설명한 신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신주의 머리 부분은 하늘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둥글게 하였고, 신주 받침의 사각형 형태는 땅의 모양을 형상화 하고 각 면의 4부분은 사계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주의 높이는 1년 12개월을 너비는 1달의 일수인 30일을 마지막으로 두께는 하루의 시간을 십이지지로 계산하였던 당시 상황에 맞추어 12시간으로 인식하고 상징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주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반

영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례의 진설에도 천문과 우주질서에 대한 상징체계가 반영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제사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연신앙적 측면으로 제례의 일차적인 근원은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것에 있었으며,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인간의 존중과 순응을 표현하는 합리적 행태를 의미[15]하며, 지상지고(至上至高)의 신에서부터 산천에 널리 있다고 믿는 여러 신들을 받들어 신의 가호로 재앙이 없고 보다 좋은 삶을 이룩하도록 기원하는 의식[16]이라는 견해로, 고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후 이 자연신앙적인 요소는 무속신앙으로 발전되어 진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는 조상신앙적인 측면이다. 자연신앙적 측면에서 나아가 인간이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18]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에게 제의례를 통해 보은하고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자연신앙적 측면에서 제의례의 대상이 되었던 자연의 논리를 통해 조상신앙적 측면의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신앙적 측면의 제사는 ‘죽은 자와 산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절차[18]로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당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거주하게 될 세계인 사후세계를 상정하였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현세와는 어떤 관계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후세계관과 우주관의 이해

고대 사람들이 인식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상호 소통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례에서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다. 이를 통해 제례에서의 의례적 상징체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성과에 의해서 고대인들이 인식한 삶의 공간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계세사상(繼世思想)으로 정립되었다. 계세사상은 「死」가 「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생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고대인의 가장 단순한 죽음에 대한 신앙이다. 계세사상에 있어서는 사후에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매장된 지하에서 현세에서의 공적(功績)에 관계없이 현세와 동양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계속한다. 따라서 사후의 세계(冥界)도 여기에 있어서는 현세와 본질적으로 차이(差)가 없으며 사(死)는 다만 현세에서 명계(冥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대 한인(韓人)들이 장의(장례)에 고무작요(鼓舞作樂)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음은 사실상 이와 같은 사(死)에 대한 신앙에 기인된 것[19]이다. 이처럼 고대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계세사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삶이 영위되는 공간인 이승과 사후세계인 저승을 같은 모양으로 인식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계세사상에 근거하여 저승의 형태와 상징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한 삶의 공간인 이승에 대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징체계를 살펴보면 이승과 저승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인들이 인식한 세상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법인 주비법(周髀法)과 결부되어 발전한 개천설(蓋天說)은 전한(前漢)초기까지 유일한 과학적인 우주구조론이었다. 왕충(王充)의 개천설(蓋天說)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위아래에 위치하여 북극에 그 중심을 둔다.” [20]고 하였다. 개천설의 개(蓋)는 ‘덮다’의 뜻을 지니고 있어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는 논리의 우주구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덮고 있는 하늘아래의 땅은 그 형태가 방형(方形)으로 네모지다고 하였는데, 고대 중국의 신화집이자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서 세상의 구성에 대해, “땅은 육합(六合)의 사이에 놓여있고, 사해(四海)에 둘러싸여있다. 일월(日月)이 땅을 비추고, 별들이 경영을 하며, 사시(四時)를 다스리며, 태세(太歲)로 감겨있다.” 라고 하였다. 『산해경(山海經)』에서는 육합(六合)의 방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공간의 구성이 전·후·좌·우(前後左右)

右)의 사방과 위(上), 아래(下)의 여섯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대지는 사방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의 해와 달, 별로 인해 계절이 변화되면서 만물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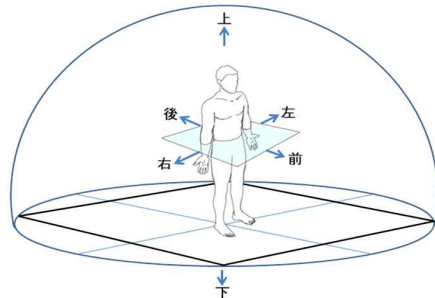


그림 1. 육합의 방위개념도
 Figure 1. Concept Map of the Bearing of the Six Sums

이를 앞서 논의한 개천설과 관련하여 육합의 개념을 확장하여 보면, 세상은 하늘이 덮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위, 아래, 전후좌우의 여섯 가지 방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땅의 끝은 하늘과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천체를 관측한 기구인 ‘혼천의’의 모양에서도 알 수 있는데, 혼천의는 역대 중국에서의 제작한 혼천의의 제작과 관련하여 변천과정(變遷)이 서술[21]된 『혼천의설』이란 책에서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혼천의설』에서 혼천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강희(康熙) 년간에는 천체의(天體儀)를 만들었는데 역시 고대의 혼상과 같았다. 이는 동으로 구형(球形)을 만들어 천체의 형상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천체의 모양을 고대의 혼상과 같이 구형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고대인들이 하늘과 땅의 모양을 형상화할 때 하늘은 땅을 덮고 있는 구형(球形)의 형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 하늘의 모양에 수많은 별자리를 그려 함께 표현한 천문도의 형태가 원형의 원도(圓圖)인 것은 하늘의 모양이 구형(球形)으로 원형(圓形)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둥근 모양으로 표현하고 그 속에 별자

리를 배치한 것이다. 다음은 혼천의와 동양천문도의 대표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리고 중국의 「순우천문도」이다.



그림 2. 혼천의
Figure 2 Celestial gl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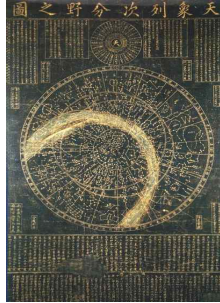


그림 3. 천상열차분야지도 [22]
Figure 3 Chunsang Yulcha Bunya Jido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늘과 땅의 형태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형태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서두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계세사상의 논리로 인해 삶을 영위하는 이승의 형태가 천원지방의 형태였다면, 사후세계인 저승의 형태 역시 같은 모양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형태가 같고 그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제례를 통한 상호소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천문관에 나타난 상징성의 이해

고대 동양의 천문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앞서 『산해경(山海經)』에서 논의한 “일월(日月)이 땅을 비추고, 별들이 경영을 하며, 사시(四時)를 다스리며”의 부분이다. 천문의 관측을 통해 천원지방의 형태를 가진 세상이 일월의 변화를 통해 하루가 이루어지고, 별들의 운행 변화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별자리의 변화를 사계절의 변화와 연동하여 인식함으로써 계절의 변화에 따른 별자리의 이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시간변화의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경을 중요시하던 동양의 사회구조에서 하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관측하고 일상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하늘의 변화를 사계절로 인식하였고, 별자리를 통해 계절의 구분과 연결시킴으로써 사신(四神)의 개념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별자리는 서양과는 달리 각 계절마다 7개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총 28수로 정의하였고,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사신을 각 계절별로 배치시킴으로써 사신도의 개념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계절적 구분에 따른 사신도와 천문의 배치에 대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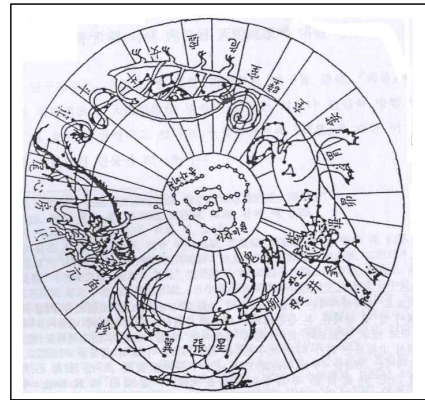


그림 4. 28宿와 四神圖[23]
Figure 4, Twenty-Eight Mansions and Four Symbols[23]

東洋에서 인식한 하늘 즉, 天文은 하늘이 곧 다른 人間世上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하여 밤하늘의 모든 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인화시켰으며 인간세계의 거울로서 地上의 모든 것의 根本으로 삼고자 하였다. 上·下와 東·西·南·北 사방(四方)의 육합(六合)개념 및 四時 四中의 季節과 24節氣·時間과 曆法 등 인간이 지상에 살기위한 모든 根據와 哲學을 하늘에서 찾았다. 즉, 仰觀하여 北極星과 七星으로 方向과 節氣를 定하고, 北斗七星의 斗柄과 北極星을 一直線으로 東方 28宿를 시작하였으며, 二分二至를 기준으로 하늘의 軸을 잡아 12支를 돌려 星次의 12구역을 나누어 절대방향과 俯察地理의 기준을 삼아 하늘의 별들을 보다 쉽게 살펴서 地上의 方位와 季節·時間을 알아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周易』 「繫辭傳 上」에 ‘하

늘이 상을 드리워 길흉을 나타내자 성인은 이것을 본받고, 河圖가 나오고 洛書가 나오자 성인은 이것을 본받는다 고 하여 하늘의 상인 천문에서 하도와 낙서가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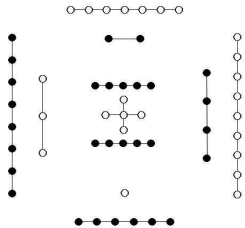


그림 5. 河圖 [24]
 Figure 5, The Ho Tu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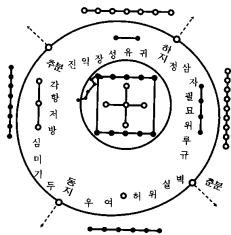


그림 6. 天文的 觀點에서의 河圖 [25]
 Figure 6. Figure 6, The astronomical standpoint of The Ho Tu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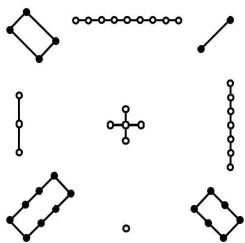


그림 7. 洛書 [26]
 Figure 7, The luòshū [26]

현재까지 河圖와 洛書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河圖와 洛書의 숫자와 분류에 의해 陰陽五行論의 근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한 天文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으며, 다른 견해는 고대 신화에 근거한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사신의 개념과 같이 천문의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 [27]를 따라 해석하고자 하였다. 河圖와 洛書는 모두 白圈과 黑圈의 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白圈은 陽數를 黑圈은 陰數를 나타내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수열에 있어서 1에서 5까지를 生數라고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라고 한다. 生數란 창조의 근원수로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며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다른 말로는 命數라고도 한다. 成數란 사물을 완성하는 數로써 사물은 형체를 이루므로 成數는 形數 또는 物數라고도 호칭한다.

특히 그림 7과 같이 天文的 觀點에서의 河圖는 각각의 방위에 28수를 배치함으로써 계절과 하도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하도가 천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늘과 땅의 구조, 그리고 하늘의 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천문도와 이를 상징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를 통해 이해하였음을 살펴보았다.

III. 음양오행론의 이해와 그 상징성

1. 음양론과 오행론의 이해

앞선 논의를 통해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늘과 땅의 구조와 시간 및 계절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시간과 계절의 측정과 일상에서의 활용은 농경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계절을 구분하는 것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구조적으로 완성된 세계에서의 운행과정과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본장의 목적이다. 먼저 태양의 향배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하고 있는 ‘음양론(陰陽論)’에 대한 논의이다. 음양이라는 문자는 자의로 볼 때 산의 북쪽인 응달과 산의 남쪽인 양달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설문해자』에서 ‘음’에 해당하는 문자는 구름에 가려 해를 볼 수 없는 것을 뜻하고, ‘양’에 해당하는 문자는 구름이 걷혀 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28]. 또한 『시경』에서는 ‘음’은 ‘어둡다’, 혹은 ‘덮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양’은 ‘방위, 햇빛, 따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음양’에 대한 최초의 의미는 태양의 향배나 방위를 지칭하는 뜻[29]으로 사용되었다.

후대에 이르러 ‘음양’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음 \Rightarrow 양’으로 ‘양 \Rightarrow 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현상이라 이해하면서 ‘음양’을 고정된 관념이 아닌 변화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미도 ‘밝고, 어둡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주기, 나아가 시간의 변화과정’을 의미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30]

전국시대의 음양은 기후와 기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계절 변화의 요인, 사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평의 원리, 사시의 변화작용, 자연적 변화’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31]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음양은 ‘따뜻하다, 어둡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햇빛 즉 태양과 관계된 뜻으로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 \Rightarrow 양, 양 \Rightarrow 음’으로 되는 과정을 통해 음과 양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시대에 음양은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계절의 변화, 사시의 변화작용, 자연적 변화’ 등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행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행론’ 성립초기의 ‘오행’은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다섯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 자료를 가리키며,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자료와는 구별되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32].

금·목·수·화·토는 오재(五材)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다섯 가지 재료의 의미만을 나타냈었다. 「홍범」에 나타난 오행은 처음으로 오행의 성질과 쓰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水는 물건을 적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졌으며, 火는 물건을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졌으며, 木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는 성질을 가졌으며, 金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졌으며, 土는 식물

을 심으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였다. 「홍범」에는 오행의 성질과 특성만 나타나 있어 오재의 의미가 강하고 순수나 과정의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금·목·수·화·토라는 기본물질의 의미나 성질이 아닌 ‘순서’와 ‘차례’의 의미가 중시되면서 戰國時代 末期와 漢代에 오행은 ‘영원히 순환운동을 하는 5개의 기본적인 힘’으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오재라는 명칭으로 ‘순서’와 ‘차례’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 [33]의 의미를 포함한 ‘오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에 순서와 차례를 부여하고 순환운동을 하는 5개의 기본적인 힘으로 파악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음양오행론과 상징체계

앞에서 보았듯이 음양과 오행은 각기 특징이 있지만 음양과 오행은 동일한 존재원리에서 출발한 다른 표상체계이므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음양을 논할 때 오행을 이해해야 하며, 오행을 논할 때는 음양과의 관계를 이해[34]해야 한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해와 관련하여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천지의 기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고, 나뉘어서 음양이 되고, 쪼개져서 사시로 되고, 나열되어 오행이 된다.’고 하여 음양과 오행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수는 겨울이 되고, 금은 가을이 되고, 토는 늦여름이 되고, 화는 여름이 되고, 목은 봄이 된다.’고 하였다. 음양의 변화가 사시로 나타나고 오행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행의 각 요소마다 계절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자』에서는 ‘봄에는 양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태어난다. 여름에는 양기가 끝까지 올라갔으므로 만물이 자라난다. 가을에는 음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므로 만물을 거두어들인다. 겨울에는 음기가 끝까지 내려왔으므로 만물을 저장한다. 그러므로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나며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이 사시의 절도이다’라고 하였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양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만물이 태어나면 봄이 온 것이고 양기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는 만물이 자라났기 때문에 여름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음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만물을 거두어들일 시기인 가을이 온 것이고 음기가 절정을 이루면 만물을 저장하는 시기인 겨울이 온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관자에서는 음양의 변화로 인해 계절이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월령」에서는 사시와 방위를 봄 ⇒ 동, 여름 ⇒ 남, 가을 ⇒ 서, 겨울 ⇒ 북으로 배합하고, 그 사시의 변화를 오행의 성쇠로 설명한다. 즉, 다섯 가지 물질의 속성과 그 상호작용에 따라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35]으로 각 계절마다 방위가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관자』에서 음양의 변화에 따른 계절의 등장, 「월령」의 계절에 따른 방위의 설정, 동중서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계절은 음양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각 계절은 오행으로 나타나고 방위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음의 그림 8.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季節과 方位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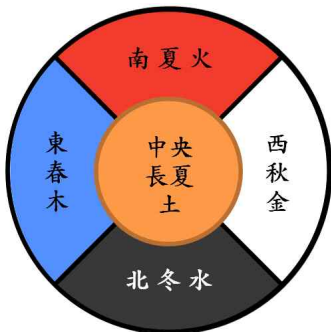


그림 8.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季節과 方位
 Figure 8, Seasonal and defense in term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앞서서 음양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에 따라 계절이 변한다고 논했다. 즉 음에 해당하는 결실, 추위 등의 성질에 의해 가을과 겨울이 등장하고 양에 해당하는 생명의 시작, 더위 등의 성질에 의해 봄과 여름이 나타나게 된다. 만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누는 두 범주의 개념으로써의 음양 관념이 『역전』에서 사용 되어 지는데, ‘음’은 여성적

인 것, 수동성, 추위, 어둠, 습기, 부드러움을 뜻하고,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조, 굳음을 뜻하게 된다[36]. 이외에 다른 성질들을 더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표 1. 陰陽 比較表[37]

Table 1. Comparison of Yin-Yang [37]

구분	天地	強弱	高低	乾濕	色	숫자	方位	季節
陽	天	強	高	乾	赤色	홀수	東, 南	봄, 여름
陰	地	弱	低	濕	青色	짝수	西, 北	가을, 겨울

음양의 성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오행 또한 목·화·토·금·수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행에만 있는 성질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五行 比較表[38]

Table 2. Comparison of Five Elements [38]

구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천간(天干)	갑술(甲, 乙)	병정(丙, 丁)	무기(戊, 己)	경신(庚, 申)	임계(壬, 癸)
지지(地支)	인(寅), 묘(卯)	사(巳), 오(午)	진(辰), 미(未)	신(申), 유(酉)	해(亥), 자(子)
방위(方位)	동(東)	남(南)	중앙(中央)	서(西)	북(北)
계절(季節)	춘(春)	하(夏)	사계(四季)	추(秋)	동(冬)
육신(六神)	청룡(靑龍)	주작(朱雀)	구진동사(句陳騰蛇)	백호(白虎)	현무(玄武)
색소(色素)	청색(靑 靑)	적자(赤 紫)	황강(黃 綠)	백운(白 粟)	흑록(黑 綠)
오물(五物)	초목(草 木)	열광(熱 光)	산전(山 田)	금석(金 石)	강해(江 海)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천간은 목에 갑·을, 화에 병·정, 토에 무·기, 금에 경·신, 수에 임·계가 나타난다. 땅을 상징하는 지지에서는 목에 인·묘, 화에 사·오, 토에 진·술·축·미, 금에 신·유, 수에 해·자가 나타난다.

방위와 계절은 동쪽은 목이고 계절은 봄이며, 남쪽은 화이고 계절은 여름이다. 중앙은 토로 사계의 몸 역할을 담당한다. 서쪽은 금이고 계절은 가을이며, 북쪽은 수이고 계절은 겨울이다.

방위와 계절의 상징적 개념인 육신에서 목은 청룡, 화는 주작, 토는 구진·동사, 금은 백호, 수는 현무를 상징한다. 색소는 색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목의 청색은 청색을 상징하고 화의 적자는 적색을 상징한다. 토의 황강은 황색, 금의 백운은 흰색, 수의 흑록은 흑색을 상징한다. 오물의 개념으

로 봤을 때 목에는 풀과 나물, 화에는 빛과 열, 토에는 산과 밭, 금에는 쇠와 돌, 수에는 강과 바다를 상징한다.

이처럼 음양오행사상이 자연물과 자연현상, 계절, 방위 등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 장에서는 제례진설의 상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V. 제례진설과 상징체계의 이해

1. 진설과 상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 상차림에 대한 재미난 기사를 발견했다. 제사 상차림에 ‘치서피동(서쪽에 치킨, 동쪽에 피자)’을 기사였다.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먹을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올리는 게 어떨겠냐’, 혹은 ‘어차피 차례상과 제사상의 기준은 옛날에 그 시절 음식을 위주로 한 것 아니냐’며 ‘그것을 고집할 것 없이 지금 기준으로 소고기 산적 대신 프라이드치킨을 올려도 되고 굴비 대신 광어회를 올려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39].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상에 대한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진설되는 음식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사회변동으로 보고 올바른 제례 진설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상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논의를 통해 고대인이 인식한 천문관과 세계관을 살펴보고, 이러한 우주관의 음양오행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질서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세상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천원지방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질서는 음양오행을 통해 그 논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의례화 속성의 관점에서 제례진설에 나타난 상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현대에 행해지고 있는 진설방법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다음 [표 3] 現代 祭禮의 陳設 例는 현재 각 가정에서 활용되는 진설의 대표적인 예를 종합한 것이다[40]

표 3. 現代 祭禮의 陳設 例 [41]

Table 3. Table arrangement example of modern rituals [41]

진 설 방 법	내 용
• 天產陽數 地產陰數	하늘에서 나는 것은 홀수로, 땅에서 나는 것은 짝수.
• 考 妣 各 設	내외분이라도 상을 따로 차리는 것.
• 匙 楮 居 中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음.
• 炙 楮 居 中	적(구이)은 중앙에 놓음.
• 羹 西 醢 東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첩은 동쪽에 놓음.
• 飯 西 羹 東	메(밥)는 서쪽이고 갡(국)은 동쪽.
• 魚 東 肉 西	생선은 동쪽이고 고기는 서쪽에 놓음.
• 麩 西 餅 東	국수는 서쪽이고 떡은 동쪽에 놓음.
• 西肺東醢, 또는 左肺右醢	또는 서쪽이고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음.
• 熟 西 生 東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음.
• 東頭西尾	머리는 동으로 하고 꼬리는 서쪽.
• 紅 東 白 西	홍색과일은 동으로 하고 백색과일은 서쪽.
• 東 棗 西 栗	대추는 동쪽, 밤은 서쪽.
• 棗 栗 梨 柿	서쪽으로부터 대추, 밤, 배, 감으로 놓음.

이러한 제례진설의 예는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되어있으며 그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방위 또는 좌·우와 연결되어 진설의 위치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 역시 지속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해야 문화가 유지되면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진설방법들이 어떠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하고자 한다.

이에 [표 3] 現代 祭禮의 陳設 例에 나타난 진설방법이 禮書 내에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예학의 기준을 제공하였던 『朱子家禮』의 제례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일 6品, 소채·포·해 각각 3品, 어·육·면식·떡 각각 1盤, 갡·반 각각 1椀, 간(肝) 각 1串, 육 각 2串하여 진설한다.” “진설방법은 과일은 남쪽 끝에 진설하고, 소채·포·해는 그 다음 줄에서 서로 사이를 두고 진설하고, 잔과 초첩은 북쪽 끝에 진설하는데, 잔은 서쪽에 접은 동쪽에 시저는 중간에 진설한다.” “고기는 잔반의 남쪽, 면은 고기의 서쪽, 물고기는 초첩의 남쪽, 떡은 물고기의 동쪽, 국은 초첩의 동쪽, 밤은 잔반의 서쪽에 진설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서라고 할 수 있는 『四禮便覽』의 제례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진설방법은 과일은 남쪽 끝에 진설하고,

소채·포·해는 그 다음 줄에 서로 사이를 두고 진설하고, 잔과 초점은 북쪽 끝에 진설하는데, 잔은 서쪽에 접은 동쪽에 시저는 중간에 진설한다.” “고기는 잔반의 남쪽, 면은 고기의 서쪽, 물고기는 초점의 남쪽, 떡은 물고기의 동쪽, 국은 초점의 동쪽, 밥은 잔반의 서쪽에 진설한다.[54]” 이를 바탕으로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의 陳設圖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신위(神)				
반(飯)	잔반(盞)	시접(匙)	초채(醋)	갱(羹)
면(麵)	육(肉)	적(炙)	어(魚)	병(餅)
포(脯)	숙채(熟)	청장(淸)	해(醢)	침채(沈)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그림 9. 『朱子家禮』 陳設圖

Figure 9. 『Confucian Ritualism』 Table arrangement

신위(神)				
반(飯)	잔반(盞)	시접(匙)	초점(醋)	갱(羹)
면(麵)	육(肉)	적(炙)	어(魚)	병(餅)
포(脯)	소(蔬)	장(醬)	침채(沈菜)	해(醢)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그림 10. 『四禮便覽』 陳設圖 [43]

Figure 10. The 『Sarye Pyeollam』 Table arrangement [43]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의 陳設圖를 비교해보면 과일(果)과 소채(蔬菜)·포(脯)·해(醢)의 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수의 종류와 진설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禮書인 『朱子家禮』와 『四禮便覽』과 [표 3] 現代 祭禮의 陳設 例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4] 『朱子家禮』와 『四禮便覽』과 現代 祭禮陳設 比較表처럼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4. 『朱子家禮』와 『四禮便覽』과 現代 祭禮陳設 比較表
 Table 4. Comparison of 『Confucian Ritualism』, 『Sarye Pyeollam』 and modern rituals table arrangement example

진 설 방 법	禮書 기록	禮書 미기록	비고
• 天產陽數 地產陰數		○	
• 考此各設		○	
• 匙櫛居中	○		朱子家禮 ⁵⁰⁾
• 炙櫛居中		○	
• 盞西醋東	○		朱子家禮·四禮便覽
• 飯西羹東		○	
• 魚東肉西		○	
• 麵西餅東		○	
• 西脯東醢, 또는 左脯右醢		○	
• 熟西生東		○	
• 東頭西尾		○	
• 紅東白西		○	
• 東棗西栗		○	
• 棗栗梨柿		○	

대표적인 현대 제례진설 방법 중에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匙櫛居中’과 ‘盞西醋東’으로 ‘수저는 중앙에 놓고, 잔은 서쪽에 초점은 동쪽에 진설한다.’고 두 예에서 나타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진설방법은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제수를 진설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좌·우의 위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에는 아무런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불확실한 지식만을 가지고 제사 상차림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의례로써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제례진설의 논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당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제례진설에도 담겨 있지 않을까.

제사의례에서 기준이 되는 신주는 1년 365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형태는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천원지방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조상의 혼이 깃들여 있는 신주가 천원지방의 형태를 갖추고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다면, 조상과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제사 상차림 역시 이와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주관과 음양오행의 논리를 통해

제례진설에 표현된 상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진설방법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祭需 分析表

Table 5. Food offerings profiles in term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진 설 방 법	내 용
• 天産陽數 地産陰數	하늘에서 나는 것은 홀수로, 땅에서 나는 것은 짝수.
• 考妣各設	내외분이라도 상을 따로 차리는 것.
• 匙 擗 居 中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음.
• 炙 擗 居 中	적(구이)은 중앙에 놓음.
• 盞 西 醋 東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첩은 동쪽에 놓음.
• 飯 西 羹 東	메(밥)는 서쪽이고羹(국)은 동쪽.
• 魚 東 肉 西	생선은 동쪽이고 고기는 서쪽에 놓음.
• 麵 西 餅 東	국수는 서쪽이고 떡은 동쪽에 놓음.
• 西脯東醢, 또는 左脯右醢	포는 서쪽이고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음.
• 熟 西 生 東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음.
• 東 頭 西 尾	머리는 동으로 하고 꼬리는 서쪽.
• 紅 東 白 西	홍색과일은 동으로 하고 백색과일은 서쪽.
• 東 糞 西 粟	대추는 동쪽, 밥은 서쪽.
• 棗 栗 梨 柿	서쪽으로부터 대추, 밤, 배, 감으로 놓음.

제사 상차림은 方의 형태로 땅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땅의 계절적 변화를 진설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세상의 질서는 음양오행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朱子家禮』의 陳設圖에 나타난 제수들을 각 열을 기준으로 음양오행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식화한 것이 위의 [표 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祭需 分析表이다.

『朱子家禮』 陳設圖에서 1열에 진설된 제수는 반(飯)과羹(羹)이다. 반(飯)과羹(羹)은 음양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반(飯)은 양의 기운을,羹(羹)은 음의 기운을 가진다. 오행의 관점에서는 반(飯)과羹(羹)은 불을 이용하여 만드는 火食이므로 두 가지 모두 火의 기운을 가진다. 그러므로 양의 기운을 가진 반(飯)은 양의 방향인 동쪽에 음의 기운을 가진羹(羹)은 양의 방향인 서쪽에 위치한다.



그림 11. 곡식의 변화체계
Figure 11 Grain system of change



그림 12. 식물의 변화체계
Figure 12 Plant system of change



그림 13. 동물의 변화체계
Figure 13 Animal system of change

2열에 진설된 제수는 면(麵), 육(肉), 적(炙), 어(魚), 병(餅)이다. 면(麵)과 병(餅)은 곡식의 변화체계를 통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씨앗이었던 곡식을 삶으면 면(麵)이 되고, 곡식을 불에 익히면 반(飯)이 되고, 곡식을 찌어서 2차 가공하면 병(餅)이 된다. 즉, 곡식의 변화체계는 [그림 11] 곡식의 변화체계에서 보듯이 씨앗 → 면(麵) → 반(飯) → 병(餅)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변화관계 속에서 면(麵)은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상징하는 木의 기운을 가지며, 병(餅)은 성숙하여 완성의 의미를 상징하는 金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이에 면(麵)과 병(餅)의 관계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면(麵)은 양의 기운을, 병(餅)은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육(肉), 적(炙), 어(魚)의 경우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土의 기운을 가지며, 우주의 질서와 그 원리에 의해 세상을 하늘 · 땅 · 바다로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하늘에서 생활하는 날짐승, 땅에서 생활하는 들짐승, 바다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를 각각 진설하였다. 육(肉)과 어(魚)는 음양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육(肉)은 양의 기운을 어(魚)는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3열에 진설된 제수들은 포(脯), 숙채(熟菜), 청장(淸醬), 해(醢), 침채(沈菜)이다. 청장(淸醬)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므로 土氣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44]. 먼저 포(脯)와 숙채(熟菜)의 관계를 보면, 포(脯)와 숙채(熟菜)는 음양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포(脯)는 양의 기운을 숙채(熟菜)는 음의 기운을 가진다. 오행의 관점에서는 포(脯)는 동물의 성장을 상징하고, 숙채(熟菜)는 식물의 성장을 상징하여 두 가지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를 지닌 木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식물인 숙채(熟菜)와 침채(沈菜)의 관계를 보면, 식물의 변화체계는 씨앗에서 성장하여 숙채(熟菜)가 되고, 불을 이용하여 익혀서 반(飯)이 되고, 저장하고 발효의 과정을 거쳐 침채(沈菜)가 된다. 즉, 식물의 변화체계는 [그림 12] 식물의 변화체계에서 보듯이 씨앗 → 숙채(熟菜) → 반(飯) → 침채(沈菜)의 관계가 형성된다. 식물의 변화체계 속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숙채(熟菜)가 양의 기운을 가지며, 식물이 성장을 완료하여 저장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친 성숙한 상태를 상징하는 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침채(沈菜)가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숙채(熟菜)는 주로 3색 나물인 시금치 · 고사리 · 도라지를 진설하는데, 각각 식물의 뿌리 · 줄기 · 잎을 상징한다. 이는 뿌리를 상징하는 도라지는 백색으로 金의 기운을 가지는 동시에 음의 기운을 가진다. 잎을 상징하는 시금치는 청색으로 木의 기운을 가지는 동시에 양의 기운을 가지게 되므로 서로 상대적으로 대비된다. 줄기를 상징하는 고사리는 황색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土의 기운을 가지는 동시에 양의 기운을 가진다.

해(醢)와 침채(沈菜)의 관계를 보면, 음양의 관점에서 해(醢)는 양의 기운을 가지며, 침채(沈菜)는

음의 기운을 가진다. 해(醢)와 침채(沈菜)는 각각 동물과 식물로서 성장과 발전을 끝마치고 성숙한 상태를 상징하는 金의 기운을 가진다.

두 가지 모두 동물인 포(脯)와 해(醢)의 관계를 보면, 음양의 관점에서 포(脯)는 양의 기운을 가지며, 해(醢)는 음의 기운을 가진다. 동물의 변화체계는 씨앗에서 성장하여 포(脯)가 되고, 불을 이용하여 익혀서 갱(羹)이 되고, 저장과 발효의 과정을 거쳐 해(醢)가 된다. 즉, 동물의 변화체계는 [그림 13] 동물의 변화체계에서 보듯이 씨앗 → 포(脯) → 갱(羹) → 해(醢)의 관계가 형성된다. 동물의 변화 관계 속에서 포(脯)는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상징하는 木의 기운을 가지게 되며, 醢(해)는 완성의 의미를 상징하는 金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4열에 진설된 제수들은 과일이다. 『朱子家禮』에서는 6과를, 『四禮便覽』에서는 4과를 진설한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과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장성이 높은 대추, 밤, 감, 배를 주로 진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추와 감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火의 기운을 가지며, 밤과 배는 백색으로 金의 기운을 가진다. 적색인 대추와 감과 백색인 밤과 배 중 상대적으로 적색이 양의 기운을 백색이 음의 기운을 가지므로, 대추와 감이 양의 기운을 밤과 배가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이에 4열에 진설되는 과는 음양오행의 관점에 따라 양의 방향인 동쪽에서부터 양인 대추, 음인 밤, 양인 감, 음인 배의 순으로 배치한다. 또한, 목과(木果) 뿐만 아니라 조과(造菓)인 약과와 산자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적색으로 양의 기운을 가진 약과와 백색으로 음의 기운을 가진 산자를 목과(木果)에 이어서 진설한다.

이상으로 위에서 논의한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朱子家禮』陳設圖에 표시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14]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와 같고, 이를 음양오행으로 구분하면 [그림 1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區分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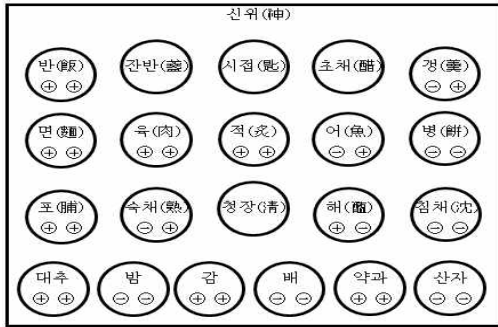


그림 14.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Figure 14.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n terms of food festival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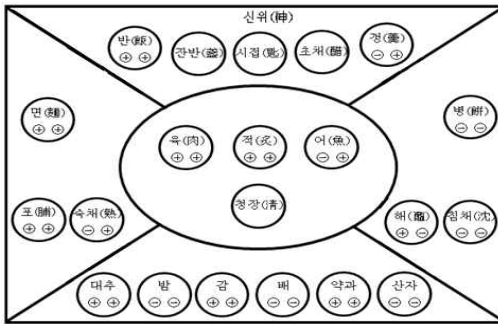


그림 1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區分

Figure 15. Food festival layout analysis in term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그림 14]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에서 보듯이, 동쪽에는 양의 기운을 가진 제수들이 서쪽에는 음의 기운을 가진 제수들이 진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만물의 소생인 씨앗은 묘의 형상으로 계절은 새 생명을 준비하는 겨울을, 방위는 북쪽을 상징하며 水의 기운을 가진다. 겨울을 지나 생명의 발전을 주도하는 봄이 되면, 만물들은 식물과 동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식물은 숙채(熟菜)로 동물은 포(脯)로 형상화되며, 방위는 동쪽을 상징하며 木의 기운을 가진다. 여름에 이르러 만물들은 열매를 맺거나 성장을 완료한다. 식물은 반(飯)으로, 동물은 갱(羹)으로 형상화되며, 방위는 남쪽을 상징하며 火의 기운을 가진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면 만물들은 발전과 성장이 완료되어 성숙해진다. 식물은 침채(沈菜)로,

동물은 해(醢)로 형상화되며, 방위는 서쪽을 상징하며 金의 기운을 가진다. 중앙에 배치된 육(肉), 적(炙), 어(魚), 청장(淸醬)은 사계(四季)의 몸역할을 상징하는 土의 기운을 가지며,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

이에 [그림 8]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季節과 方位와 [그림 1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區分을 보면, 음양오행의 계절과 방위가 제사 상차림과 일치하므로 제례진설이 음양오행의 논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 5] 河圖와도 제사 상차림의 계절과 방위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제사 상차림은 계절적 논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한 변화의 질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설방법이 우주관과 세상에 대한 질서인 음양오행의 논리가 적용되어 이를 통해 제례진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우주관과 음양오행을 제사 상차림에 표현함으로써, 조상들에게도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응감하기를 기원하였을 것이다.

2. 진설에 나타난 공간구조의 이해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제사상의 방위의 배치가 일반적인 방위의 개념과는 상반된 논리로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로 상반된 공간배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사상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삶과 죽음의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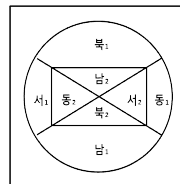


그림 16. 전체방위
Figure 16 Combined Be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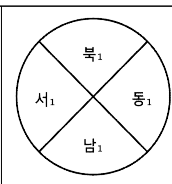


그림 17. 일상의 방위
Figure 17. Normal Bea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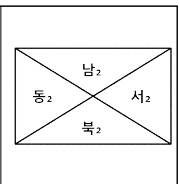


그림 18. 제사상의 방위
Figure 18 Bearings on the Ritual Table

제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소통하는 의례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두 공간이 형성되며 당대 사람들의 방위기준이 성인남면(聖人南面)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방위가 존재하게 된다. 그 공간은 [그림 16]과 같이 통합된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중 죽은 자의 공간을 살펴보면, 일반

적으로 남향을 하는 기준에서 신주의 위치가 남향을 하기 때문에 [그림 17]에 보여지는 동₁ 과 서₁, 북₁ 과 남₁ 으로 배치된다. 이는 유교적 생사관에 의해 죽음 이후에는 모두 기(氣)로 존재하게 되면서 세상의 공간적 방위와 같이 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자의 공간은 집례자를 기준으로 남면(南面)하는 방위개념인데, [그림 18]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동₂ 와 서₂, 남₂ 와 북₂ 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집례자를 중심으로 한 방위의 개념은 제 4장에서 제물의 진설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된 방위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제례는 서로 다른 공간의 대상인 산자와 죽은 자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공간과 산자의 공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일방적 개념에서 죽은 자의 공간 개념과 일치하는 일상적 방위만을 인정할 경우 산자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은 제한 받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위해서 그림 1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사상이 배치됨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제사상은 서로의 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적극적 상징으로 의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례는 상징체계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 수단으로 모두에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제사상은 죽은 자와 산자가 시·공간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의례적 도구로서 상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대 제례진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킨, 피자, 바나나, 수박 등의 제물에 대한 진설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상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물이 제물로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이해의 상징성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의 제물은 시·공간적 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 위치가 결정되고 진설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문화는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정형화 시키고, 의례화 하는 속성을 갖는다. 특히 제례는 그러한 속성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대표적 의례이다. 오늘날 제례의 진설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홍동백서, 좌포우혜 등의 방법으로 진설하면서 과일, 씨앗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제례 진설방법의 근거가 되는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설방법에 대한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문화의 의례화 속성의 관점에서 제례의 진설을 분석한다는 것은 의례의 기준이 되었던 당시의 철학과 사상,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제례의 조상신앙적인 측면에서 죽은 자들이 거주하게 될 세계인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과 현세와의 소통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대 사람들은 현세와 사후세계의 관계에 대해 계세사상으로, 현세의 우주구조를 천원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면서 별자리를 28수로 상징하고 계절의 변화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고대 천문지식의 상징체계 속에 하도·낙서가 등장하여 인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우주구조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음양오행론의 이론적 배경과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음양오행론이 천문에 대한 우주질서의 연행논리로서 해석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제례진설을 천문과 음양오행의 상징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4열에 진설되는 과(果)는 씨앗을 상징하여 만물의 시작을 암시하고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로 음(陰)의 기운을, 방위의 관념으로는 북쪽을 상징한다. 2열과 3열에 진설된 면(麵), 포(脯), 숙채(熟菜)는 각각 곡물, 동물, 식물의 성장을 의미하며, 계절적 배경은 봄으로 양(陽)의 기운을, 방위의 관

념으로는 동쪽을 상징한다. 1열에 진설된 반(飯)과羹(羹)은 불에 익힌 음식으로 여름을 나타내고 음양오행의 양(陽)의 기운과 방위개념으로는 남쪽을 상징한다. 2열과 3열에 배치된 병(餅), 해(醢)와 침채(沈菜)는 죽어서 썩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을을 나타내고, 음(陰)의 기운과 서쪽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2열과 3열 중앙에 배치된 육(肉), 적(炙), 어(魚), 청장(淸醬)은 사계(四季)의 몸 역할을 상징하여 만물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절적 배경은 늦여름을 나타내고, 양(陽)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사상의 방위의 배치가 일반적인 방위의 개념과 상반된 논리로 배치되어 이러한 상반된 공간배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사상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삶과 죽음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소통하는 의식이기에 죽은 자와 산 자의 공간이 각각 존재해야 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죽은 자의 공간은 기(氣)가 되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면(南面)하는 기준 방위를 가지게 되고, 산 자는 죽은 자와 소통하고자 마주보는 위치에서 남면(南面)하여 산 자의 공간이 존재한다. 죽은 자의 공간 내에서 제사상을 통해 산 자의 공간을 나타내어 두 공간이 서로 공존하게 된다. 제사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함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어 산 자와 죽은 자가 소통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제물이 제물로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이해의 상징성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 제례진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물에 대한 진설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상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이 필요하다. 즉, 현대의 제물은 시·공간적 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 위치를 결정하고 진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제례진설에서의 논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나 서론에서 논의하였던 문화의 의례화 속성의 논리에 따른 당대의 주요 철학적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우주관과 음양오행론의 상징체계로 해석한 결과 제례진설에는 시간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의 논리가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의 사방위(四方位)에 대한 상징적 논리를 가짐으로써 제례의 반복주기와 관련하여 제례진설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의례대상이 조상이 인지하지 못한 세상의 변화를 제물을 통해 시공간적 변화의 개념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례의 여러 부분들 중 제례 진설에 한정하였고, 제례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후 후학의 연구를 바란다. 또한 『朱子家禮』에서는 앞선 진설 논리를 언급하지 않고, 신주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례진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화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올바른 의미를 갖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Ku Mirae, 『A symbol of Korean World』, Kyobomun'go, 2000. p3
- [2] I Yōngim, 『Symbolism study appeared in the Joseon Dynasty ritual Doubles』, Chung-an University, 2005. p1
- [3] Yu T'aeyong, 『What is culture?』, Hakyōn munhwasa, 1999. p11
- [4] Yu T'aeyong, 『What is culture?』, Hakyōn munhwasa, 1999. p14
- [5] Kim Miyōng, 「Dailiness and Non-dailiness in the Ancestral Rit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vol. 35, 2008. p509
- [6] I Kyōnga, 「Symbolic analysis of clan Lee's Bulchunwi ancestor worship」, Ewha Womans University, 1982. p5
- [7] I Sukin, 「Jujagarye and Sacrificial Rites in the Middle Chosun: Politics of Unity and Exclus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vol. 29-2, 2006. pp35-36

- [8] I Sukin, 「Jujagarye and Sacrificial Rites in the Middle Chosun: Politics of Unity and Exclus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vol. 29-2, 2006. p36
- [9] Kim Sitök, 「Continuation of sacrifice and change the way the digital age」,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2001. p214
- [10] I Kit'ae, 「Festival of contemporary society -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ay village」, 『Folk Studies vol. 9』, 1999. p145
- [11] Kim Sitök, 「Continuation of sacrifice and change the way the digital age」,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2001. p214
- [12] Yu Taeyong, 『What is culture?』, Hakyönmunhwasa, 1999. p69
- [13] Pae Yöngtong, 「Compare consider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of food and daily food offerings」, 『Folk Studies vol. 9』, 1999. p92
- [14] Pyön T'aesöp, 「Inheritance-idea & ancestor-worship of ancient Korea」, 『History Education Research vol. 3』, 1958. p267
- [15] I Sangin,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ought to the implications festival」, 『Wonkwang University Theses Collection vol. 36』, 2006. p281
- [16] Yun Sukkyöng, 「Dietary Culture for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in Andong Area (I) -Bul-Chun-Wi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The present study inve」, 『Korea Food Culture Vol.11 No.4』, 1996. p439
- [17] Kim Ch'ölcha, 「A Study on the Sacrificial and Funeral Rites in Younghung Island」, 『Kijönmunhwayöng'u vol. 28』, 2000. p63
- [18] I Sangin,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ought to the implications festival」, 『Wonkwang University Theses Collection vol. 36』, 2006. pp277-278
- [19] Pyön T'aesöp, 「Inheritance-idea & ancestor-worship of ancient Korea」, 『History Education Research vol. 3』, 1958. pp270-271
- [20] Yamat'a K'eiji, Kim Sökkün, 『Chuchaüichayönhak』, 1998. p37
- [21] Kim Sanghyök, 「On the Armillary Sphere in the Uigijipse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2. p24
- [22] Chön Ch'angsön-Ö Unhyöng,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n the way』, Y-Gelli Books, 2010. p53
- [23] Hö Chinung, 『Ancient Chinese society - the character and the pioneer of anthropology』, Tong Munsön, 1998. p609
- [24] Han Tongsök, 『Principle of the universe changes』, Taewönych'ulp'an, 2001. p176
- [25] Chön Ch'angsön-Ö Unhyöng,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n the way』, Y-Gelli Books, 2010. p279
- [26] Han Tongsök, 『Principle of the universe changes』, Taewönych'ulp'an, 2001. p176
- [27] I Ch'ölyöng,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Dongguk University, 2007. p35-47
- [28] I Ch'ölyöng,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Dongguk University, 2007. p9
- [29] Song Kapchun, 「A Way of Thinking in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Agents」, 『Journal of Humanities vol. 14』, 2001. p114

- [30]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0
- [31] Pak Chöngyun, 「Formation of Yin-Yang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hhaengseol」, Korea University, 2001. p23
- [32]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4
- [33]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4
- [34] Kim Yöngmok, 「 Ontological Analysis of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 Principl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1. p36
- [35]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21
- [36]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3
- [37]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52
- [38] Ch'ae Pyöngyun, 『Human and Five Elements』, Chimmundang, 1997. pp413-415
- [39] Cho Chinho, 「 Thanksgiving in charyesan g ' chidong Chengde ? 」, Sports tendency, 2009.09.29.
- [40]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51
- [41]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51
- [42]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52
- [43] To Am I Chae, Kim Ũngghyön , 『kukyök salyep'yönlam』, 2003. p248
- [44] I Ch'ölyöng, 「 Search for the Traditional Views on Life and Death of the Korean Race : Centering o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Five Elements (陰陽五行論) 」, Dongguk University, 2007. p157